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8월 14일 국회직 9급 가책형

2021. 08. 1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 ①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 ② 우리 회사에서 수소 자동차가 개발되었다.
- ③ 할아버지께서 지금 막 돌아오셨다.
- ④ 이번 춘계 대회는 우리 학교에서 전국을 제패하였다.
- ⑤ 우리 학교가 운동장이 좁다.

2. 우리말의 어법에 맞고, 의미가 정확한 문장은?

- ① 지하철 공사가 이제 시작됐으니, 언제 개통될지는 불투명하다.
- ②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 ③ 그 문제를 논의하자면 오후에는 팀원 전체가 모여 회의를 가질 겁니다.
- ④ 다행히 비상문이 열려져 있어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 ⑤ 선배가 농담으로 한 말이 그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3. 띄어쓰기 원칙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는 단어가 아니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 ② 어미는 단어가 아니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 ③ 접미사는 단어가 아니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 ④ 파생어는 한 단어이므로 구성 요소를 띄어 쓰지 않는다.
- ⑤ 합성 명사는 한 단어이므로 구성 요소를 띄어 쓰지 않는다.

4.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저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行色) 보아하니 군사도망(軍士逃亡) 네로고나  
㉠요상(腰上)으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장방이 노닥노닥  
곱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리(十里) 길을 ㉣할레 가니 몇 리 가서 업쳐지리  
내 고을의 양반(兩班) 사람 타도타관(他道他關) 옮겨 살면  
천(賤)이 되기 상사여든  
본토군정(本土軍丁)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逃亡)하면  
일국일토(一國一土) 한 인심(人心)에 근본(根本)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손가  
차라리 네 사던 곳에 아모케나 뿌리 박여  
칠팔월(七八月)에 채삼(採蔘)하고  
구시월(九十月)에 돈피(獬皮) 잡아  
공채신역(公債身役)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북청(咸興北靑) 흥원(洪原) 장사 돌아들어 잠매(潛賣)할 제  
후가(厚價) 받고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너른 곳에  
가사전토(家畝田土) ㉠고쳐 사고 가장집물(家藏什物) 장만하여  
부모처자(父母妻子) 보전(保全)하고 새 즐거움을 누리려든  
- 지은이 모름, 「갑민가」에서 -

- ① ㉠은 '허리 위'라는 뜻이다.
- ② ㉡은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목에 둘러대서 앞에서 여밀 수 있도록 된 부분'을 의미한다.
- ③ ㉢은 '절름발이'를 의미한다.
- ④ ㉣은 '할레발떡'의 줄임 말로, '숨을 가쁘고 거칠게 몰아쉬는 모양'을 의미한다.
- ⑤ ㉣은 '뭇 쓰게 된 것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는 뜻이다.

5.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전략)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에서 -

-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한 비극적 정조가 두드러진다.
- ② 촉각적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다.
- ③ 전통을 과감히 부정하는 미래지향적 전망을 보여준다.
- ④ 공간적 동질감이 시적 화자의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 ⑤ 근원적 사랑의 상실이라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6.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처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를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8월 14일 국회직 9급 가책형

2021. 08. 1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① 경어체를 통해 진리 탐구의 경건한 자세를 보여준다.
- ② 의문형 문장을 통해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 ③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시의 주제를 명확히 드러낸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가 돋보인다.
- ⑤ 동일한 통사 구조는 시상을 통일하는 효과를 지닌다.

7.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유전자의 ( ㉠ )을/를 이용하여 먼 과거까지 들여다볼 방법이 있다. 한 종의 유전자 풀은 과거 특정 환경에서 살아남은 서로 ( ㉡ ) 카르텔이다. 이는 그 환경에 일종의 ( ㉢ )을 남긴다. 지식이 있는 유전학자라면 한 동물의 ( ㉣ )로부터 그 조상이 살았던 환경을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두더지의 DNA는 축축하고 째깍하며, 지렁이 냄새, 딱정벌레 애벌레 냄새로 가득한 지하 세계를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읽어낼 줄만 안다면 아라비아낙타의 DNA에는 고대의 사막, 모래바람, 사구, 목마름이 코딩되어 있을 것이다.

- |                           |                           |                          |                           |
|---------------------------|---------------------------|--------------------------|---------------------------|
| ㉠                         | ㉡                         | ㉢                        | ㉣                         |
| ① 사상 - 협력하는 - 음각 도장 - 유전체 | ② 정보 - 경쟁하는 - 양각 도장 - 유전체 | ③ 사상 - 경쟁하는 - 음각 도장 - 생태 | ④ 정보 - 협력하는 - 음각 도장 - 유전체 |
| ⑤ 사상 - 협력하는 - 양각 도장 - 생태  |                           |                          |                           |

8.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자료를 꼼꼼이 정리해 두었다.
- ② 장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 ③ 이웃들은 나를 따뜻이 반겨주었다.
- ④ 그는 우리 어머니를 매번 깎듯이 대했다.
- ⑤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살살이 살펴보았다.

9. <보기>에서 (가)~(마)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가) 외부 불경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세금 제도는 취지가 좋다고 쉽게 정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개입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외부 효과를 근거로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는 논쟁거리이다.

(나) 외부 효과란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부 효과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면 외부 경제(긍정적 외부 효과), 반대로 손실을 끼치면 외부 불경제(부정적 외부 효과)가 된다. 예컨대 꽃집에서 화사한 화분을 진열해 놓은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낡은 트럭에서 내뿜는 시커먼 매연은 불편을 초래한다. 꽃집은 타인에게 외부 경제를, 매연을 내뿜는 트럭은 외부 불경제를 제공한 것이다.

(다) 피구세 중에서도 국민 건강과 복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특정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물리는 세금을 죄악세라고 부른다. 일부 국가에서 논의되었던 설탕세, 소다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설탕, 탄산음료 등과 같은 식품은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료 수요 증가, 건강 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므로 이를 억제하고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외부 불경제를 법으로 규제하거나 수혜자에게 비용(세금)을 물려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피구세'라고 부른다. 피구세는 첫 제안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딴 것으로, 외부 불경제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외부 효과를 내부화, 즉 본인 부담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다. 환경세, 교통세 등이 피구세의 범주에 속한다.

(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부 경제는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좋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는 심각한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기에 늘 사회적 관심사가 된다.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해와 환경 문제이다. 술, 담배, 비만 유발 식품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들은 즐기는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과할 경우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 ① (가)-(나)-(라)-(다)-(마)
- ② (가)-(나)-(라)-(마)-(다)
- ③ (나)-(마)-(라)-(가)-(다)
- ④ (나)-(마)-(라)-(다)-(가)
- ⑤ (마)-(나)-(라)-(다)-(가)

10. 다음 중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 ① 영수는 모임에 혼자 안 갔다고 말했다.
- ② 그릇의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가열하지 마세요.
- ③ 숲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포수에게 쫓긴다.
- ④ 동생은 웃으며 떠나는 누나를 배웅했다.
- ⑤ 군사 기밀을 적에게 넘긴 대령의 애인에 관한 이야기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8월 14일 국회직 9급 가책형

2021. 08. 1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1.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제안을 표결에 붙여 결정하자.
- ②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붙여 왔다.
- ③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 ④ 소대장이 대대장에게 경례를 올려붙였다.
- ⑤ 모두 바지를 걷어붙이고 개울로 뛰어들었다.

12.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gap: 갭
- ㉡ bridge: 브릿지
- ㉢ headlight: 헤드라이트
- ㉣ barricade: 바리케이드
- ㉤ top class: 톱 클래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3.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그 녀석은 생긴 품이 제 아버지를 닮았다.

- ①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의 품에는 두어 살 가량 난 애가 안겨 있었다.
- ② 겨울옷은 품이 넉넉해야 다른 옷을 꺼입을 수 있다.
- ③ 이 마을의 모든 머슴들은 품 값기를 함으로써 일을 줄여 나가고 싶어 한다.
- ④ 옷 입는 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 ⑤ 어머니는 이 집 저 집에 품을 팔아 우리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셨다.

14. 다음 글에서 '큰오빠'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러나 정작 큰오빠 스스로가 자신이 그려 놓은 신화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공장에서 돈을 찍어 내서라도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던 시절에는 우리들이 그의 목표였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실패할 수 없도록 이를 악물게 했던 힘은 그가 거느린 대가족의 생계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동생들이 모두 자립을 하였다. 돈도 벌 만큼 벌었다. 한때 그가 그렇게 했듯이 동생들 또한 젊고 탱탱한 활력으로 사회 속에서 뛰어가고 있었다. 저들이 두 발로 달릴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 라고는 묻고 싶지 않지만 노쇠해 가는 삶의 깊은 구멍은 큰오빠를 무너지게 하였다. 몇 년 전의 대수술로 겨우 목숨을 건진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큰오

빠의 삶이 흔들거렸었다. 이것도 해선 안 되고 저것도 위험하며 이러저러한 일은 금하여야, 는 생명의 금칙이 큰오빠를 옥죄었다. 열심히 뛰어 도달해 보니 기다리는 것은 허망함뿐이더라는 그의 잦은 한탄을 전해들을 때마다 나는 큰오빠가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수없이 유년의 기록을 들추면서 위안을 받듯이 그 또한 끊임없이 과거의 페이지를 넘기며 현실을 잊고 싶어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이 시대에서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지도.

머지않아 여관으로 변해 버릴 집을 둘러보며, 집과 함께해 온 자신의 삶을 안주삼아 쓴 술을 들이켜는 큰오빠의 텅 빈 가슴을 생각하면 무력한 나 자신이 안타까웠다. 아버지 산소에 불쑥불쑥 찾아가서 죽은 자와 함께 한 병의 술을 비우는 큰오빠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도 같았다. 한 인간의 뼈저린 고독은 살아 있는 자들 중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것, 오직 땅에 묻힌 자만이 받아들 수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였다.

- 양귀자, 「한계령」에서 -

- ①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룬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 ② 과거보다는 미래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
- ③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④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고 있다.
- ⑤ 반복된 사업 실패로 자신을 지탱하던 가족들과 멀어졌다.

15.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에서 -

- ① '나'가 말을 건네는 대화적 상황을 가정한다.
- ② '할머니'는 무관심의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한다.
- ③ '가마니'는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보여준다.
- ④ '-겠다'라는 어미의 반복은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 ⑤ '기다림'은 주위를 둘러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8월 14일 국회직 9급 가책형



2021. 08. 1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① 유전체 편집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 ② 크리스퍼 기술의 사용에 대한 국제적 협약이 필요하다.
- ③ 과학기술이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한 원인이다.
- ④ 생명과학의 발달이 국가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 ⑤ 생명공학 문제의 해결에는 특권층의 결단이 요구된다.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못에 비오는 소리 그 무엇이 놀랍관대  
임 보러 가던 꿈이 못 보고 깨듯던고  
잎 위에 구슬만 담겨 눈물 들듯 하더라

- ① 임과 헤어져 있는 괴로움이 해소되고 있다.
- ② 초·중장에 비와 서정 자아 사이의 대립이 있다.
- ③ 종장에 와서 초·중장의 시상이 전환하고 있다.
- ④ 비와 서정 자아의 눈물이 직유로 맺어져 있다.
- ⑤ 임을 그리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8월 14일 국회직 9급 가책형

2021. 08. 1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정답 및 해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②	⑤	①	⑤	②	③	④	①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④	②	⑤	③	②	⑤	①

01 ② 현대문법-통사론: 문장성분

②의 문장에서 '회사에서'는 부사어이며, '수소 자동차가'가 주어이다. 이때의 '에서'는 부사격조사이다.

[오답 풀이]

- ①, ③, ④, ⑤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성분은 모두 주어이다.
- ④의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다.
- ⑤의 문장은 서술절을 안은 겹문장이다. 즉 주어(우리 학교가)+[주어(운동장이)+서술어(좁다)]의 구조이다.

02 ⑥ 현대문법-통사론: 올바른 문장 표현

⑤의 '입히다'는 '입다'의 사동사로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3자릿수 서술어이다. '주어(말이) 부사어(그에게) 목적어(상처를)'로 올바르게 표현된 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언제 개통될지는 → 언제 지하철이 개통될지는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겹문장이다. 앞 문장은 '주어(공사가) 서술어(시작되다)'로 바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뒤 문장의 서술어 '개통될지는'과 호응하는 주어 가 없다. 따라서 의미상 '지하철이'라는 주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하철이 언제 개통될지는 ~'으로 표현해야 한다.
- ②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대등접속조사 '과'로 이어진 겹문장으로서,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된 문장이다. 즉 '목적어(장점과 단점을) 서술어(보완해야 한다)'는 문장은 '장점을 보완해야 한다+단점을 보완해야 한다'의 구성이다. 그런데,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올바른 표현이지만, '장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단점은 보완해야 하지만 장점은 살려야 하므로 '~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로 표현해야 한다.
- ③ 회의를 가질 → 회의할, 회의를 할  
'회의를 가지다.'라는 말은 영어 'have a meeting'을 그대로 번역한 표현으로, '회의하다'로 표현해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 회의할 겁니다' '또는' '~ 회의를 할 겁니다'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④ 열려져 → 열려  
'열려져'는 '열+리(피동접사)+어지(통사적 피동 표현)+어(연결어미)'의 구성으로, 피동 접사 '-리-'와 피동 표현을 만드는 '-어지다'를 중복해서 사용한 이중피동표현이다. 이중피동은 바르지 않은 표현이므로 '열다'의 피동사 '열리다'를 사용하여 '열려'로 고쳐야 바른 표현이다.

03 ① 어문규정-한글맞춤법: 띄어쓰기

① 조사는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독립된 단어로 인정한다. 다만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오답 풀이]

- ③ 접두사는 어근의 앞, 접미사는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독립된 단어가 아니므로 반드시 어근과 붙여 써야 한다.
- ④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복합어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므로 어근과 접사를 띄어 쓰지 않는다.
- ⑤ 합성 명사는 한 단어이므로 구성 요소를 띄어 쓰지 않는다.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복합어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므로 각각의 어근으로 띄어 쓰지 않는다.

04 ⑤ 고전문학-가사: 어휘의 의미

㉠의 '고터'는 현대어 '다시'의 옛말이다. '가사전토(家舍田土) ㉠고쳐 사고'는 '집과 논밭을 다시 사고'의 의미이다.

[오답 풀이]

- ① ㉠: 요상(腰上: 腰 허리 요/上 윗 상): 허리 위
- ② ㉡: 깃: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목에 둘러대어 앞에서 여밀 수 있도록 된 부분. 위의 가장자리는 동정으로 쓴다. ㉢양복 뒷옷에서 목둘레에 길게 덧붙여 있는 부분. ㉣때가 잘 타는 이불의 위쪽이나 베개의 곁에 덧대는 천.
- ③ ㉣: 전태발이: 절름발이(절뚝발이), 다리를 저는 사람.
- ④ ㉤: 혈레: 숨을 가쁘고 거칠게 몰아쉬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 '혈레벌떡'의 준말.

※출전[문04]: 작자 미상, 「갑민가(甲民歌)」

- 해제: 조선 영·정조 때 갑산에 살았던 작가가 지은 가사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갑산 백성들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이 작품은, 도망가는 갑산 군사들에게 자신의 집안 내력과 부역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학정에 아내마저 잃고 집안이 망가졌으나 왕의 은택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 등을 이야기하면서 북청부사의 선정을 기대하며 그곳으로 도망친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갑산 백성들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작품이지만, 북청부사 성대중의 선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 핵심 정리
  - 지은이: 미상, 함경도 갑산의 어느 백성으로 추정
  - 갈래: 조선 후기 서민 가사
  - 연대: 조선 영·정조 때
  - 성격: 현실 비판적, 구체적
  - 주제: 갑산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가혹한 정치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스런 삶
- 현대어 해석  
아아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 나니 군사도망(하는 이가) 너로구나  
(너의) 허리 위를 보면 베적삼이 깃만 남아 있고  
허리 아래를 굽어보니 헌 장방이가 노닥노닥하구나.  
허리 굽은 노모는 앞에 가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은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혈레벌떡 가니 몇 리 가서 얹쳐지리.  
내 고을의 양반인 사람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서 살면  
천하게 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인데 고향의 군역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  
근본을 숨겨서 살려고 한들 (네가) 어디 가서 (천한 신세를) 면할 것인가  
(천한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네가 (원래) 살던 곳 (고향인 갑산)에 아무렇게 뿌리박아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8월 14일 국회직 9급 가책형

2021. 08. 1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칠팔월에는 삼을 캐고 구시월에는, 돈피를 잡아  
공채 신역을 갠 후에 그 나머지(남은 삼과 돈피)를 두었다가  
함흥, 북청, 흥원에 장사를 돌아들어 몰래 팔아서  
후한 값을 받고 팔아서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을 다시 사고 살림 도구를 장만하여  
부모와 처자식을 보전하고 새 즐거움을 누리렴.

**05** ② 현대문학-현대시: 표현상 특징

이 시는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옛것을 찾기 힘들 만큼 변해 버린 도시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작품이다. '서늘한 옷자락'은 촉각적 심상을 통해 촉촉한 세파를 뚫고 오신 아버지의 체취(사랑)를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마지막 연의 '눈'과 '붉은 산수유(山茱萸) 열매'에서 '흰새채 대비가 드러나 있으나, 이는 비극적 정조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시련(눈)을 극복한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붉은 산수유 열매)을 형상화 표현이다.

③ 전통을 과감히 부정하는 미래지향적 전망을 보여준다.

'성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이지만, 이 시에서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인류를 구원한 예수의 사랑과 연결 짓는 소재이다. 즉 서구적 성탄이 아닌, 아버지와 산수유 열매 등의 한국적 정서를 형상화 것이다. 또한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여 준 헌신적인 사랑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전통을 부정하는 미래지향적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④ 성탄절 무렵 내리는 눈을 보며 어린 시절의 체험을 현재의 성탄제와 연결하고 있으므로 공간이 아닌 시간적 동질감으로 볼 수 있다.

⑤ 아버지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山茱萸) 붉은 알알이 혈액(血液) 속에 녹아 흐르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혈액의 정이 아직까지 화자 자신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부각한 것이다. 따라서 근원적 사랑의 상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05]출전: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1969)

1. 해제: 이 시는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옛것을 찾기 힘들 만큼 변해 버린 도시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작품이다. 눈을 매개로 한 회상의 구조,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 등을 활용하여, 세상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인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 주제: 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에 대한 그리움

3. 구성

• 1~6연: 어린 시절, 아픈 아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눈 속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따오신 일에 대한 기억

• 7~10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서러운 서른 살이 되어 불현듯 느끼는 그리움

**06** ③ 현대문학-현대시: 표현상 특징

이 시는 '~는 누구의 ~입니까?'의 의문형 문장을 반복[동일한 통사구조]하여 주제를 심화하고 있다. 이는 절대자의 신비로움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설의적 표현일 뿐, 물음에 대한 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입니까'라는 경어체,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진리에 대한 경건한 자세와 절대자에 대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④ '낮(1-4행)→저녁(5행)→밤(6행)'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⑤ 이 시는 '~은 누구의 ~입니까.'라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문적 진솔임에도 운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문06]출전: 한용운, 「알 수 없어요」

1. 해제: '알 수 없어요'라는 이 시의 제목은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그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는 경어체와 의문형의 어구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절대자나 진리에 대한 끝없는 탐구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절대적 존재의 실존은 알 수 없지만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 내용정리

1) 표현상 특징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낮(1-4행) → 저녁(5행) → 밤(6행)

② 의문형 문장의 반복[동일한 통사구조]을 통해 주제를 심화하고 시상을 통일함.

③ 자연 현상을 통한 깨달음을 형상화함.

2) 주제: 절대적 존재에 대한 동경과 그를 위한 희생 의지

**07** ④ 비문학-사실적 독해: 빈칸 적절한 어휘

㉠ 1문단의 내용을 보면, 유전자를 이용하여 '먼 과거까지 들여다볼 방법', '그 조상이 살았던 환경'을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는 유전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 카르텔(Kartell)은 동일 업종의 기업이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를 뜻하는 독일어이다. 따라서 ㉡에는 유전자의 카르텔, 즉 협력하는 관계이다.

㉢ 양각(陽刻)은 배경을 파내어 글자나 그림 따위를 도드라지게 새기는 것이고, 음각(陰刻)은 글자나 그림을 파내어 안으로 들어가게 새기는 것이다. 문맥상 유전자는 환경에 일종의 발자취와 같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므로 배경(환경)은 그대로 두고 문자를 파내어 문자(유전자의 흔적)를 보이게 하는 음각으로의 비유가 적절하다.

㉣ 유전체는 한 생물체가 지닌 유전자의 총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전학자들은 한 동물의 유전체로부터 각각의 유전자가 지닌 환경을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08** ① 어문규정-한글맞춤법

① 꼼꼼이 → 꼼꼼히

<한글 맞춤법> 제6장 제51항 규정을 보면,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이 단어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며, [꼼꼼히]로만 발음되는 것으로 보아 '꼼꼼히'로 표기한다.

[오답 풀이]

② '헛되이'는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발음 나는 경우이므로 '헛되이'로만 적는다. 헛되히(×)

③ '따뜻이'는 'ㅌ' 받침 뒤의 부사화 접사가 분명히 '이'로 소리 나는 경우이므로 '따뜻이'로 적는다. 따뜻히(×)

④ '깍뚝이'는 'ㅌ' 받침 뒤의 부사화 접사가 분명히 '이'로 소리 나는 경우이므로 '깍뚝이'로 적는다. 깍뚝히(×)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8월 14일 국회직 9급 가책형

2021. 08. 1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참고] '깍뚝이'와 '깍뚝이'

- '깍뚝이'는 '분명하게 예의범절을 갖추는 태도로'라는 뜻의 부사이다.
- 예) 손님을 깍뚝이 대접해야지.
- '깍뚝이'는 동사 '깍다'의 어간 '깍'과 어미 '뚝이'가 결합한 말로, '깍는 것처럼'이라는 뜻이다.
- 예) 연필을 깍뚝이 이걸 좀 깍아 봐.
- ⑤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살살이'로 적는다.

09 ④ 비문학-작문: 단락의 순서

각 단락의 핵심 어휘 및 중시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외부 불경제- 세금 제도가 쉽게 정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논쟁거리.  
(나) 외부 효과-외부 경제와 불경제의 개념  
(다) 피구세 중 - 특정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물리는 세금  
(라) 따라서(인과 접속어) 외부 불경제를 법으로 줄이기 위한 피구세의 장의  
(마) 외부 경제는 권장할 일, 외부 불경제는 심각한 갈등과 비용을 유발  
이를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배열하면,  
(나)에서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 경제와 불경제의 개념을 중시화제로 먼저 제시한다.  
→ (마)에서 외부 불경제의 문제점을 제시  
→ (라)에서 인과접속어 '따라서'로 연결하여 외부 불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인 '피구세'  
→ (다) '피구세 중에서' 특정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물리는 세금의 구체적 사례 제시  
→ (가) (앞에서 설명한) 외부 불경제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 제도가 쉽게 정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논쟁거리이다.

10 ③ 현대문법-통사론: 중의적 표현

③은 중의적 해석되지 않는 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부정 표현에 수량을 나타내는 부사 '혼자, 다, 모두, 조금, 많이' 등이 있으면 부정의 범위에 그 부사의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① ㄱ 영수만 모임에 안 갔다  
↳ 영수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갔다.
- ② ㄱ 얼음이 전부 녹기 전에는 가열하지 마세요.  
↳ 얼음이 전부 녹기 전까지만 가열하세요.
- ④ '웃으며'의 주체가 모호하다. '웃으며'이 주체가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떠나는) 누나'가 될 수도 있다. 이때는 첨표를 사용하면 명확한 문장이 된다. 첨표는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ㄱ 동생은 웃으며, 떠나는 누나 ~ : '웃으며'의 주체는 동생  
↳ 동생은, 웃으며 떠나는 누나 ~ : '웃으며'의 주체는 누나
- ⑤ 관형어구의 수식관계가 모호한 문장이다. '군사 기밀을 적에게 넘긴' 주체가 '대령'일 수도 있고, '대령의 애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11 ① 어문규정-한글맞춤법

- ① 붙여 → 부쳐  
'부치다'는 "어떤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낸다." 또는 "어떤 문제를 다른 기회로 넘겨 맡기다."의 뜻이다. 반면에 '붙이다'는 "맞달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부치다'는 무언가를 보내거나 맡긴다는 뜻이고, '붙이다'는 달라붙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붙이다'와 '부치다'는 '붙-'의 의미가 살아 있으면 '붙이다'로 적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치다'로 적어서 구분한다. ①은 '붙다'의 의미가 없으므로 '표결에 부쳐'로 표현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② 말을 걸거나 치근대며 가까이 다가서다
- ③ 한쪽으로 세게 밀다,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계속 몰아붙이다.
- ④ 손을 들어 거수경례를 하다.
- ⑤ 소매나 바짓가랑이 따위를 말아 올린다.

[참고] '-붙이다'와 '벗어부치다'

'벗다' '밀다' '걷다' '쏘다' 등처럼 '부치다'와 '붙이다'가 붙어 하나의 낱말이 되는 경우도 '달라붙다'의 뜻이 살아 있는 말에는 '붙이다'를 적는다. 그래도 헷갈리면 '벗어부치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붙이다'가 붙는다고 생각해도 된다. '밀어붙이다' '걸어붙이다' '쏘아붙이다' '몰아붙이다' '올려붙이다' 등은 단어 속에 무엇을 무엇에 붙인다는 의미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붙이다'가 붙은 것이다. 하지만 '벗어부치다'는 '힘차게 대들 기세로 벗다'란 의미다. '벗다'를 강조하는 말인 것이다. 하여 '달라붙다'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어서 '부치다'가 붙었다.

12 ③ 어문규정-외래어 표기법

- ㉠ gap[gæp] 갭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인 [p]은 받침으로 적는다.
- ㉡ barricade: 바리케이드  
표기 'barricade'에 따라 '바리케이드'로 적는다.

[오답 풀이]

- ㉠ 브릿지 → bridge[bri:dʒ] 브리지  
어말 또는 자음 앞의 [dʒ]는 '지'로 적는다.
- ㉡ 헤드라이트 → headlight[hedlait] 헤드라이트  
따로 쓸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헤드(head)+라이트(light)'의 합성이므로 '헤드라이트'로 표기한다.
- ㉢ 톱 클래스 → top class[topklæs] 톱 클래스/톱클래스  
'top'은 영국식 발음에 따라 '톱'으로 적고, 'class'는 미국식 발음에 따라 '클래스'로 표기한다. 영어 외래어 표기는 미국 발음과 영국 발음이 다를 경우 영국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를 상정한다. 다만, 기존에 널리 쓰이고 있는 표기의 경우 관행적 표기를 인정하고 있는데, '클래스(class)'는 관행적 표기를 인정하여 표기한 것이다.  
또한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top class[topklæs] 톱 클래스/톱클래스

13 ④ 현대문법-의미론: 어휘의 의미관계

<보기>의 '품'은 '행동이나 말씨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됨됨이'를 뜻하는 의존명사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④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8월 14일 국회직 9급 가책형

2021. 08. 1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오답 풀이]

- ① 품: '두 팔을 벌려서 안을 때의 가슴'을 뜻하는 명사.
  - ② 품: '윗옷의 겨드랑이 밑의 가슴과 등을 두르는 부분의 넓이'를 뜻하는 명사.
  - ③, ⑤ 품: '샀을 받고 하는 일'을 뜻하는 명사
- [관용구] 품(을) 값다: 남에게 받은 품을 돌려주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품을 제공한다.
- ④ 품: '행동이나 말씨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됨됨이'를 뜻하는 의존명사

[참고] <보기>와 ④는 한 단어, ①과②는 한 단어, ③과 ⑤는 한 단어이다. 그리고 이 단어들의 관계를 동음이의어이다.

14 ④ 현대문학-현대소설: 인물의 성격, 특징

'큰오빠'는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던 시절에는 우리들(동생들)이 그의 목표였다' 하지만 '동생들이 모두 자립'을 하고 '노쇠해 가는 삶의 깊은 구멍은 큰오빠를 무너지게 하였다', '큰오빠가 잃은 것', '큰오빠의 텅 빈 가슴', '죽은 자와 함께 한 병의 술을 비우는 큰오빠의 마음' 등을 표현을 통하여 동생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큰오빠'가 이제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② 현재 삶의 의미를 상실하여 '죽은 자와 함께 한 병의 술을 비우는 큰오빠'는 미래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 ③ 아버지와 관계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⑤ '큰오빠'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실패할 수 없도록 이를 악물고 노력한 것이다. 또한 지금은 동생들이 모두 자립을 하고 돈도 벌만큼 벌었다. 또한 동생인 '나'는 현재 삶의 의미를 상실한 '큰오빠'를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복된 사업 실패'나 '가족들과 멀어졌다'는 설명은 바르지 않다.

※[문14]출전: 양귀자, 「한계령」

1. 해제: 이 작품은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의 한 편으로, 작가가 1980년대 부천 원미동에 살면서 만난 사람들을 서술자와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나'는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25년 만에 연락해서 자신을 찾아오라는 친구 '은자'의 요청에 쉽게 응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결국 은자가 일하는 새부천 클럽을 찾아가고, 거기서 여가수가 부르는 '한계령'을 듣는다. 이 노래를 들으며 '나'는 큰오빠와 동시대에 살았던 소시민들의 고달팠던 삶에 대해 연민과 위로를 보내고 있다.

2. 핵심 정리

- 1) 배경: 1980년대, 서울과 부천
  - 2)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3) 주제: 소시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과 위로
3. 전체 줄거리

소설가인 '나'는 25년 만에 어린 시절 동무인 박은자의 전화를 받는다. 갑자기 걸려온 옛 친구의 전화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큰오빠와의 추억이 있는 고향에 대해 회상하게 된다. 은자는 방무대 가수가 되었는데 그 부천의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하니, 꼭 자신의 무대를 보러 오라고 한다. '나'는 은자를 찾아가기로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은자가 마지막으로 공연한다는 일요일, '나'는 큰오빠가 고향 집을 팔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그날 밤 은자를 찾아간다. '나'는 노래 '한계령'을 들으며 큰오빠가 살아온 세월과 고단한 삶의 무

게가 떠올라 눈물을 흘리며 노래에 빠져든다. 은자를 만나지 않고 돌아온 사흘 뒤 은자는 전화를 걸어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나'의 무심함을 질타한다. 그리고 신사동에 '좋은 나라'라는 카페를 개업했다며 그곳에 들를 일이 있으면 꼭 찾아오라고 말한다.

15 ② 현대문학-현대시: 표현상 특징

②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를 놓고 추위에 떨며 장사하는 '할머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즉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할머니의 굴 값을 깎으며 기뻐하던 '너(기쁨)'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여 '슬픔(나)'이 '기쁨(너)'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적 상황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마니'는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그나마 손쉽게 덮을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므로 '가마니 한 장'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갠다'의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는 동시에 '나'의 생각을 '너'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⑤ 13행의 '기다림'은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락한 삶만을 소중히 여기는 '너'에게 주려는 것으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15]출전: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1. 해제: '슬픔'과 '기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으면서 이기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시이다. 화자인 '슬픔'은 소외된 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애정을 갖는 긍정적인 존재인데 비해, 청자인 '기쁨'은 소외된 자에 무관심한 부정적 존재이다. 결국 청자인 '기쁨(너)'은 이기적으로 살면서 소외된 자에게 무관심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이 시는 우리들에게 가난과 소외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촉구하고 있다.

2. 핵심 정리

- 1) 주제: 소외된 자들의 슬픔에 대한 관심과 그 슬픔의 힘에 대한 각성 촉구
- 2) 특징
  -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갠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적인 자세를 효과적으로 나타냄.
  - '나는 ~ 주겠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이웃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깨우치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화자는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슬픔의 힘'을 깨우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갠다'의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는 동시에 '나'의 생각을 '너'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6 ⑤ 한문-한자 어휘

㉠ 교양(敎養: 敎 가르침(본받다, 익히다, 훈련하다, ~로 하여금 ~하게 하다) 교/養 기를(가르치다, 수양하다) 양): ㉡가르치어 기름.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8월 14일 국회직 9급 가책형

2021. 08. 1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이론(異論: 異 다를(진귀하다, 딴 것, 괴이하다, 거역하다) 이/論 논할(말하다, 서술하다, 따지다, 토론, 의견, 학설) 론): 달리 논함. 또는 다른 이론(理論)이나 의견.

[오답 풀이]

㉠ 유교(儒敎) → 유교(儒敎)

유교(儒敎: 儒 선비(유교) 유/敎 가르칠(본받다, 익히다, 훈련하다, ~로 하여금 ~하게 하다) 교): '유학'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르는 말.

• 교(校 학교(가르치다, 본받다, 바로잡다, 장교, 부대) 교)

㉡ 학문(學文) → 학문(學問)

• 학문(學文: 學 배울(공부하다, 학문, 가르침, 학교) 학/文 글월(문장, 글자, 책) 문): 《서경》, 《시경》, 《주역》, 《춘추》, 예(禮), 악(樂) 따위의 시서·육예를 배우는 일.

• 학문(學問: 學 배울(공부하다, 학문, 가르침, 학교) 학/問 물음(방문하다, 알리다, 부르다) 문)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힘. 또는 그런 지식.

㉢ 수용(收容) → 수용(受容)

• 수용(收容: 收 거둘(모으다, 곡식이 여물다, 빼앗다) 수/容 얼굴(모양, 몸가짐, 용서하다, 받아들이다) 용): 범법자, 포로, 난민, 관객, 물품 따위를 일정한 장소나 시설에 모아 넣음. [참고] 수용소

• 수용(受容: 受 받을(거두어들이다, 받아들이다, 배우다) 수/容 얼굴용):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

㉣ 쓰는데 → 쓰는√데(에)

• 쓰는데 → 쓰는√데

'데'가 '곳'이나 '장소', '일'이나 '것',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의 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또한 체언이므로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반면에 연결어미 '-는데'의 경우 격조사가 결합할 수 없다.

• 그동안: '그(관형사)+동안(명사)'의 합성어로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박사학위√논문: 각 단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 용어는 붙여 쓸 수 있다. 따라서 '박사√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 네√권: 네(수량관형사)√권(卷)

권(卷)은 책을 세는 단위인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참고] '박사 과정'은 '박사 과정'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사과정'처럼 붙여 적는 것이 허용되는 전문어이다. 그리고 '수료'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 박사 과정 수료(원칙)

└ 박사과정 수료(허용)

㉤ 쓸수 → 쓸√수, 없을만큼→없을√만큼

• 쓸수 → 쓸√수

관형사형 어미 뒤에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하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없을만큼→없을√만큼

관형사형 어미 뒤에 '만큼'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다만 체언의 바로 뒤에 붙는 경우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7 ㉢ 어문규정-띄어쓰기

㉢

• 그동안: '그(관형사)+동안(명사)'의 합성어로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수차례: '수(관형사)+차례(명사)'의 합성어로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참고] 수: '몇', '여러', '약간'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

• 잃어버린: '잃+어+버리+다'와 같이 '본용언+보조 용언'의 통사적 구성으로 된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한 단어로 붙여 쓴다.

• 적: 그 동작이 진행되거나 그 상태가 나타나 있을 때, 또는 지나간 어떤 때를 의미하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되돌아온: '되(접두사)+돌아오다'의 구성으로 된 파생어이므로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참고] 되-: '도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있는√듯한: 관형사형 어미 뒤에 '듯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보조형용사이므로 한 단어이며, 앞에 본용언과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오답 풀이]

㉠ 나가는√지는 → 나가는지는

• -는지: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어간에 붙여 써야 한다.

[참고] '지'가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경우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20여년 → 20여√년

• -여(餘):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년(年): 해를 세는 단위인 의존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와 연결되는 경우 붙여 쓸 수 있다.

따라서 '20여√년 / 20√년/20년 / 20년여 / 20년여'와 같이 쓸 수 있다.

18 ㉡ 현대문학-현대수필: 한자성어

㉠ (백제의) 부여는 고구려, 신라와 각축했던 격전의 땅이며, 삼국의 쟁패와 통일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아무 관계없는 당나라가 유일한 승자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부의 이익'이라는 뜻으로, 둘이 다투는 틈을 타서 엉뚱한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챈을 이르는 '어부지리(漁父之利), 방울지쟁(蚌鶻之爭), 전부지공(田夫之功), 견토지쟁(犬兎之爭)' 등이 적절하다.

㉡ 삼국의 싸움으로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고, 오히려 당나라에 광활한 영토를 잃어버린 거대한 상실,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 전장을 달려야 했던 민초들의 비극이 있었다. 이것은 무모한 걱정이 낳은 어리석은 역사이므로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음'을 뜻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 방울지쟁(蚌鶻之爭):蚌 방합 방/鶻 도요새 흙/之 갈 지/爭 다툼 쟁) 방합과 도요새의 다툼이라는 뜻으로, 제3자만 이롭게 하는 다툼을 이르는 말

• 조족지혈(鳥足之血: 鳥 새 조/足 발 족/之 갈 지/血 피 혈) '새발의 피'란 뜻으로, ㉠극히 적은 분량을 말함. ㉡아주 적어서 비교가 안 됨. ㉢물건이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킴.

㉡

• 어부지리(漁父之利: 漁 고기 잡을 어/父 아비 부/之 갈 지/利 이할 리) '어부의 이익'이라는 뜻으로, 둘이 다투는 틈을 타서 엉뚱한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챈을 이르는 말.

[유] 전부지공(田夫之功), 방울지쟁(蚌鶻之爭), 견토지쟁(犬兎之爭).

• 소탐대실(小貪大失: 小 작을 소/貪 탐낼 탐/大 큰 대/失 잃을 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음.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8월 14일 국회직 9급 가책형

2021. 08. 14.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③

• 새옹지마(塞翁之馬: 塞 변방 새/翁 늙은이 옹/之 갈 지/馬 말 마)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으로, ㉠세상만사(世上萬事)는 변화가 많아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재앙도 슬퍼할 게 못되고 복도 기뻐할 것이 아님을 이르는 말. ㉡인생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은 늘 바뀌어 변화가 많음을 이르는 말.

• 고장난명(孤掌難鳴: 孤 외로울 고/掌 손바닥 장/難 어려울 난/鳴 울 명) '외손뼉은 울릴 수 없다'는 뜻으로, ㉠상대 없이 싸울 수 없고, 혼자서는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 ㉡ 서로 같으니까 싸움이 난다는 말.

④

• 연목구어(緣木求魚: 緣 인연 연/木 나무 목/求 구할 구/魚 고기 어) '나무에 인연하여 물고기를 구한다'라는 뜻으로, 목적이나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함, 또는 허술한 계책으로 큰일을 도모함.

• 만시지탄(晩時之歎: 晩 늦을 만/時 때 시/之 갈 지/歎 탄식할 탄) '때 늦은 한탄'이라는 뜻으로,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

[유] 망양보리(亡羊補牢),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십일지국(十日之菊)

⑤

• 금상첨화(錦上添花: 錦 비단 금/上 윗 상/添 더할 첨/花 꽃 화) 비단(緋緞)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이르는 말.

[반] 설상가상(雪上加霜), 병상첨병(病上添病)

• 설상가상(雪上加霜: 雪 눈 설/上 윗 상/加 더할 가/霜 서리 상)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겹침을 이룸 또는 '환난이 거듭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유] 병상첨병(病上添病), 설상가설(雪上加雪), 전호후랑(前虎後狼)

[상] 금상첨화(錦上添花)

※[참고] 출전: 신영복, 『나무야 나무야』 중 「꿈꾸는 백마강」

19 ⑤ 비문학-사실적 독해: 내용 파악

2문단에서, 자식의 유전적 자원을 증강하려는 의도로 크리스퍼 기술을 사용하는 특권층이 탄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생명공학 문제의 해결에는 특권층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2문단과 3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윤리적 논란은 크리스퍼에도 재현'될 것이고, '인간배아 실험에 관한 초국가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으므로 크리스퍼 기술의 사용에 대한 국제적 협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의 내용을 보면, 크리스퍼는 '몇 가지 윤리적 논란들'이 있고, '인간배아실험에 관한 초국가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치명적인 유전적 질환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자식의 유전적 자원을 증강하려는 의도로 크리스퍼 기술을 사용하는 특권층이 탄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3문단에서도 크리스퍼는 생명공학의 생태계 교란의 논란에 기름을 부을 예정이라고 하였으므로 생명과학의 발달이 국가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20 ① 고전문학-고시조: 표현상 특징

중장에서, '임 보러 가던 꿈이 (임을) 못 보고 깨었던고'라고 하였고, 종장의 '눈물 들듯 하더라'는 '눈물이 떨어지듯 하더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현재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는 임을 그리워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 괴로움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초장의 '비'는 중장에서 화자가 임 보러 가는 꿈을 깨우는 소리이다. 따라서 '비'는 '비'는 시적 화자가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대립적 관계이다.

③ 초중장의 '비'가 화자의 잠을 깨우는 대립적 존재라면, 중장에서 앞뒤에 내리는 '비'는 '눈물이 떨어지는 듯'하므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초중장에서는 잠을 깨우는 '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고, 중장에서의 '빗소리'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④ 종장의 '눈물 들듯 하더라'는 '눈물이 떨어지듯 하더라'는 의미이므로, '~듯'의 형태로 연결된 직유법이다.

⑤ 이 작품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연정가이다.

※출전: 작자 미상의 연정가

1) 성격: 연정가

2)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3) 현대어 해석

연꽃 핀 못에 비오는 소리 그것이 무엇이 놀랍기에

임 보러 가던 꿈이 (임을) 못 보고 깨었던고.

연잎 위에 구슬(빗방울)만 담겨 눈물 떨어지듯 하더라.